

Sharq, MEG 200만톤으로 확대

Al Jubail에 에틸렌 콤플렉스 건설 ... LLDPE · PP 플랜트도 건설

Sabiq과 Mitsubishi를 비롯한 일본 컨소시엄의 합작기업인 Sharq가 사우디 Al Jubail에 에틸렌 120만톤을 포함한 석유화학 콤플렉스 건설계획을 검토중이다.

Sharq는 20억달러를 투자해 2008년까지 사우디 콤플렉스를 완공할 예정이며, EG(Ethylene Glycol) 60만톤 플랜트도 포함하고 있어 완공시 Sharq의 EG 총생산능력을 200만톤으로 확대하게 된다.

Sharq는 사우디 콤플렉스에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와 PP(Polypropylene) 플랜트도 건설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4/08/19>